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f Children*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강 희 경

Dept. of Social Welfare, Seoi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Hee Kyung Kang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the ego-resilience of school-aged children. The Social Supports Scale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social supports from family, friend, and teacher. The subjects were 438 school-aged childre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ocial supports was generally high, with the highest level being from family. Second,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also generally high. Finally, all social supports from family, friend, and teacher had positive influences on ego-resilienc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ocial supports from frien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 학령기 아동(school-aged children),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Ⅰ. 서 론

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탄력성은 단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탄력성을 지닌 개인은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며,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Walsh, 1998:33).

그러므로,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단순히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l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탄력성이란

Corresponding Authur : Hee Kyung Kang, Dept. of Social Welfare, Seoil College, 49-3 Myunmok8-dong, Chungrang-ku, Seoul, 131-702, Korea
Tel: +82-2-490-7208 E-mail: khkyung@seoil.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는 개념과는 상이하다(김미옥, 2001).

결국 탄력성이란 개인이 가진 잠재적인 중요한 자원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탄력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보호요인이란, 개인이 위험에 저항하거나 개선시키도록 돕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력적인 개인이 되도록 만드는 보호요인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범주는 기질, 변화에 대한 반응성, 인지능력, 대처 기술과 같은 성향적 특성이고, 두 번째 범주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는 가족 외적인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과 관련된다(Kirby & Fraser, 1997:16).

이 중에서도 탄력적인 개인의 보호요인으로서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효율적 자녀양육(Kirby & Fraser, 1997),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권지은, 2003), 가족의 응집성(권해수, 2003 ; 남영옥,김재한, 2003),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양국선, 장성숙, 2001),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정미현, 2003),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정미현, 2003), 가족의 지지(양국선, 장성숙, 2001), 가족의 건강성(강희경, 2005)과 같은 보호요인이 개인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아탄력성과 관련을 맺는 보호 요인이 가족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 가족 환경이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인 동시에 발달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 · 발달하면서 관여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외의 다른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으로 시작되는 학령기의 시작은 '학교'라는 공식적 체계로의 진입과 함께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 머무르던 아동의 삶이 가족 외부 환경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부모와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간관계가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교사 및 또래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히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친구의 존재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등과 같이 총체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Newman & Newman, 1995 : 355).

따라서 이러한 학령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 자아탄력성과 관련을 맺는 가족 외부 환경의 체계적인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는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정미현, 2003)나 유대관계(이은미, 박인전, 2002) 등 주로 부모-자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시도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이혼가족(서지영, 2002), 알콜중독 가족(남영옥, 김재한, 2003), 장애아동 가족(김미옥, 2001) 등 심한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자료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을 맺는 가족 이외에도 중요한 외부 환경인 친구와 교사의 영향력,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란 수혜자로 하여금 보살펴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존중되어지고, 의사소통망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필요되어지는 상호의무감이 존재한다고 믿는 관계(Turner & Avison, 1985)를 의미한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능력을 확장하게 되므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아동 후기로 갈수록 가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되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 지지를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한미현, 1996).

결국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형성시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에 초점을 둔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양적 특성보다는 질적 특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 사회적 지원의 기능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이 전환하게 되었다(Jacobson, 1986).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돕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민미희 등, 2005).

4~6학년 학령기 아동을 대상의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가족의 소득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사무관리직일 때, 가족의 소득이 높을 때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별 분석에서는 가족의 지지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가족의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구의 지지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한미현, 1996). 그러나 교사의 지지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만이 나타났다. 이렇듯,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부모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및 지식수준이 높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지적인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과 각 영역 간의 차이 검증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이 어떠한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자아탄력성

'resilience', 혹은 'resiliency'라는 용어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되지 못한 채, 연구자에 따라 '탄력성', '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resilience'를 '적응유연성'으로 번역한 경우, 이를 단순한 적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강조하고,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경우에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게 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융통성과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 및 회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탄력성'이라는 용어로 해석하고자 한다(양옥경, 최명민, 2001).

Block(1982)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탄력성(resilience)과 구분하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지칭하였다. Block(1982)은 자아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여,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지영(2002)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은 사회적 유능감으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며, 자신을 둘러싼 문제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자신에 대한 높은 지각력인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세 번째 특성에 속한다.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승경과 강문희(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권지은(200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희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강희경, 2005). 일반적인 배경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는 이유는 연구대상이 이혼가족의 아동만을 대상(김승경, 강문희, 2005)으로 하고 있거나,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대상(권지은, 2003)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령기 아동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도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Newman & Newman, 1995 : 702). 실제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김승경, 강문희, 2005)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승경과 강문희(2005)의 연구에서는 이혼가족 아동의 경우, 양육부모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모와 친구의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보다는 양육부모의 지지가 아동이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이혼 가족의 아동인 만큼, 이혼 후 달라진 가족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는 학령기 후기가 발달적으로 친구에 대한 동조성이 강화되고, 가족 외부의 활동의 증가함에 따라 가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등장되는 시기(Newman & Newman, 1995 : 354)이므로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보다는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김승경과 강문희(2005)의 연구에서는 이혼 가족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교사의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 아동에 대한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현(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 외에 친구와 교사가 중요한 타인으로 등장하게 되므로, 누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38명이다. 연구자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한 후, 서울 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강북지역에서 2개교, 강남지역에서 1개교, 총 3개교를 편의 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별로 주임교사를 통하여 질문지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다. 협조를 수락한 학교의 주임교사는 5, 6학년에서 총 4개 반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아동이 배포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지도하였다.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2005년 11월 18일까지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거된 질문지는 총 453부였으며, 이 중 그 기재가 부실한 사례를 제외하여, 총 43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은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50.5%, 여아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98세(SD=0.55, 범위 10.17-12.92세)였다. 출생순위 분포에서는 첫째아가 47.0%로 절반 가까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및 가족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 이상인 사례(아버지 59.6%, 어머니 50.8%)가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부모가 비교적 고학력 집단임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직업 분포에서는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42.3%),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사례가 53.1%를 차지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 라고 응답한 사례가 72.1%로 '여유 있는 편(20.3%)' 이거나, '어려운 편(7.5%)' 이라고 응답한 사례보다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가족의 지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438[주1])

변 인	내 용	빈도(%)	변 인	내 용	빈도(%)
아동의 성별	남 녀	221(50.5) 217(49.5)	아동의 학년	5학년 6학년	150(34.2) 288(65.8)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하	206(47.0) 200(45.7) 32(7.3)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	여유 있는 편 중간 정도 어려운 편	89(20.3) 316(72.1) 33(7.5)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174(40.4) 257(59.6)	母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212(49.2) 219(50.8)
가족유형	핵가족 확대가족	380(86.8) 58(13.2)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취업모	230(53.1) 203(46.9)
가족원수	3인 4인 5인 6인 이상	29(6.6) 278(63.5) 102(23.3) 29(6.6)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근로직 자영업 기타	76(17.8) 180(42.3) 82(19.2) 82(19.2) 6(1.4)

주1)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친구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이며, 각 하위 요인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영역별 문항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지지'는 가족이 아동을 잘 이해해 주는지, 관심이 많은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지,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지 등에 관한 지각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친구의 지지'는 친구들이 아동을 좋아하는지, 잘 도와주는지, 따돌리는지, 아동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지 등에 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교사의 지지'는 선생님이 아동의 요청을 잘 들어주는지, 아동을 인정해 주는지, 선생님과 친한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 부여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 α계수는 .89('가족의 지지' 요인 .88, '친구의 지지' 요인 .80, '교사의 지지' 요인 .88)였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박은희(1996)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개 하위 요인 각각 8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 α계수는 .84('대인관계' 요인 .72, '활력성' 요인 .65, '감정통제' 요인 .72, '호기심' 요인 .67, '낙관성' 요인 .70)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구성하는 '대인관계' 하위 요인은 친구의 말을 존중해 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활력성' 요인은 우울할 때 보다는 즐거울 때가 많고,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통제'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이 다시 좋아지도록 노력한다, 화가 나면 그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내용이다. '호기심' 요인은 새로운 반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걸고, 궁금한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낙관성' 요인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잘못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대한 질문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및 가족의 일반적 배경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분석을 위하여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의 정상성을 검증하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지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별 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종속적 t검증(paired t-test)를 적용하였고,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적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 분석을 위해서는 적률상관계수와 동시투입방식(enter)의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2〉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

(N=438)

내용	평균	1~5점 Likert 기준 평균(SD)	왜도	첨도
'가족의 지지' 요인	34.61(5.85)	4.33(0.73)	-1.61	3.00
'친구의 지지' 요인	30.23(5.44)	3.78(0.68)	-0.65	0.49
'교사의 지지' 요인	26.81(6.57)	3.35(0.82)	-0.12	0.01
사회적 지지 전체	91.65(12.86)	3.82(0.54)	-0.44	0.17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연구 대상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 점수는 91.65(SD=12.86)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5점 Likert 기준, 3.82(SD=0.54)점으로, 연구 대상 아동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분포의 정상성을 검증해 주는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지수는 각각 -0.44와 0.17로 산출되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부적 편포를 보이는 정상분포임을 알 수 있었다(표 2).

다만, '가족의 지지' 하위 영역에서는 왜도가 -1.61, 첨도가 3.00으로 나타나서 정상분포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 점수 분포가 고르게 분포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많이 몰려 있음을 반영한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에서는 '가족의 지지' 요인이 평균 34.61(SD=5.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의 지지' 요인 30.23(SD=5.44)점, 그리고 '교사의 지지' 요인 26.81(SD=6.5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종속적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세

〈표 3〉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N=438[2])

변인	내용	n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사회적 지지 전체	
			M(SD)	F(t)값	M(SD)	F(t)값	M(SD)	F(t)값	M(SD)	F(t)값
성별	남	221	34.25(6.42)	-1.30	29.33(5.57)	-3.54***	26.21(6.78)	-1.94	89.79(13.36)	-3.03**
	녀	217	34.98(5.20)	(n.s)	31.15(5.15)		27.42(6.30)	(n.s)	93.54(12.06)	
출생 순위	첫째	206	34.83(5.60)	1.51	30.05(5.56)	2.10	26.82(6.56)	0.25	91.70(12.51)	1.82
	둘째	200	34.67(5.91)	(n.s)	30.67(5.32)	(n.s)	26.92(6.65)	(n.s)	92.25(13.18)	(n.s)
	셋째이하	32	32.91(6.93)		28.66(5.19)		26.03(6.28)		87.59(12.69)	
가족 원수	3인	29	34.28(7.59)BA	4.90**[3]	28.14(6.49)	1.58	24.03(5.65)	2.37	86.45(14.83)B	3.68*
	4인	278	35.22(5.21)A		30.45(5.46)	(n.s)	27.12(6.86)	(n.s)	92.78(12.63)A	
	5인	102	32.75(6.85)B		30.24(5.20)		26.42(5.73)		89.41(12.44)BA	
	6인이상	29	35.69(4.63)A		30.24(4.66)		27.07(6.85)		93.90(12.61)A	
父의 학력	고졸이하	174	33.61(6.58)	-2.84**	29.63(5.60)	-1.87	27.28(6.94)	1.11	90.52(14.08)	-1.51
	대졸이상	257	35.24(5.25)		30.62(5.29)	(n.s)	26.56(6.31)	(n.s)	92.42(11.96)	(n.s)
母의 학력	고졸이하	212	33.72(6.22)	-3.06**	30.23(5.42)	-0.06	26.88(6.97)	0.16	90.83(13.60)	-1.32
	대졸이상	219	35.43(5.40)		30.26(5.49)	(n.s)	26.78(6.17)	(n.s)	92.47(12.14)	(n.s)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76	35.22(6.00)	0.53	30.36(5.82)	0.98	26.62(6.50)	2.01	92.20(13.18)	0.46
	사무직	180	34.87(5.19)	(n.s)	30.63(5.07)	(n.s)	26.32(6.70)	(n.s)	91.83(12.21)	(n.s)
	서비스근로직	82	34.18(6.45)		29.59(5.72)		28.55(6.96)		92.32(14.69)	
	자영업	82	34.26(6.44)		29.98(5.49)		26.05(5.49)		90.28(12.11)	
	기타	6	35.83(4.54)		33.00(4.69)		26.67(6.74)		95.50(10.80)	
母의 취업	비취업모	230	35.23(5.22)	2.09*	30.60(5.53)	1.28	26.69(6.70)	-0.38	92.51(12.68)	1.28
	취업모	203	34.06(6.36)		29.93(5.23)	(n.s)	26.93(6.47)	(n.s)	90.93(12.97)	(n.s)
가족 경제	여유있는편	89	35.02(6.75)	0.93	30.56(5.49)	1.35	28.43(6.81)A	4.13*	94.01(13.67)A	3.47*
	중간	316	34.62(5.43)	(n.s)	30.29(5.33)	(n.s)	26.53(6.44)AB		91.44(12.59)AB	
	어려운 편	33	33.39(7.09)		28.79(6.18)		25.12(6.50)B		87.30(12.11)B	
가족 유형	핵가족	380	34.74(5.67)	1.14	30.33(5.47)	0.97	26.73(6.65)	-0.67	91.79(12.83)	0.59
	확대가족	58	33.79(6.95)	(n.s)	29.66(5.21)	(n.s)	27.34(6.08)	(n.s)	90.72(13.10)	(n.s)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주2)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3) Duncan의 사후 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하위요인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서 가장 높은 지지영역은 가족의 지지이며, 다음으로는 친구,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 외부 생활이 증대되는 학령기 발달 특성으로 인해 가족 외의 중요한 타인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생활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아동에게 있어 지원 받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대상은 무엇보다 가족원임을 시사한다.

〈표 3〉은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에서 보면, 아동의 성별과 가족원수,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Mean=93.54, SD=12.06)가 남아(Mean=89.79, SD=13.36)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t=-3.03$, $p<.01$). 그러나 세 하위 영역 점수 차이 분석에서는, '친구의 지지'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어, 여아가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Mean=31.15, SD=5.15)가 남아(Mean=29.33, SD=5.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t=-3.54$, $p<.001$).

'사회적 지지' 총점수와 '친구의 지지' 하위 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그 지각수준이 높은 것은 여아와 남아의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Newman과 Newman(1995)에 의하면, 학령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구들을 보다 친밀하고 상호적인 보살핌과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360). 이러한 인식 차이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보다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가족원수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3인 가족(Mean=86.45, SD=14.83)의 사회적 지지 점수가 4인(Mean=92.78, SD=12.63) 또는 6인 이상(Mean=93.90, SD=12.61)의 대가족일 때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3.68$, $p<.05$). 하위 영역 차이 분석에서도 가족의 지지 요인에서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어, 가족원수가 4인(Mean=35.22, SD=5.21)이거나 6인 이상(Mean=35.69, SD=4.63)일 때 5인 가족인 아동(Mean=32.75, SD=6.85)보다 가족의 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4.90$, $p<.01$).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 요인에서는 가족원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아동집단(Mean=94.01, SD=13.67)이 가족의 집안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집단(Mean=87.30, SD=12.11)보다 유의하게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3.47$, $p<.05$). 하위 요인 영역 별 차이 분석에서는 교사의 지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아동집단의 점수(Mean=28.43, SD=6.81)가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Mean=25.12, SD=6.50)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F=4.13$, $p<.05$).

사회적 지지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지지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이다. 아버지($t=-2.84$, $p<.01$)와 어머니($t=-3.06$, $p<.01$)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인 집단의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 점수가 고졸 이하 집단의 아동들보다 높았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비취업모 가족 아동 점수(Mean=35.23, SD=5.22)도 취업모 가족(Mean=34.06, SD=6.36)보다 높게 분석되었다($t=2.09$, $p<.05$).

가족의 지지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지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동일한 측정도구로 연구를 실행한 한미현(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양육 및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지지적인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본 연구 대상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점수는 1-5점 Likert 척도 기준 평균 3.43(SD=0.42)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포의 정상성을 검증해 주는 왜도 및 첨도 지수는 모두 0.04로 나타나서 정상분포임을 보여주었다. 각 하위요인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평균 3.64(SD=0.56)점, '활력성' 3.56(SD=0.60)

〈표 4〉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

(N=438)

내용	평균(SD)	1~5점 Likert 기준평균(SD)	왜도	첨도
'대인관계' 요인	29.13(4.46)	3.64(0.56)	-0.28	0.62
'활력성' 요인	28.51(4.77)	3.56(0.60)	-0.15	-0.24
'감정통제' 요인	24.66(3.78)	3.08(0.47)	-0.15	0.19
'호기심' 요인	26.92(4.95)	3.36(0.62)	-0.05	-0.24
'낙관성' 요인	28.13(4.85)	3.52(0.61)	0.00	-0.31
자아탄력성 전체	137.34(16.78)	3.43(0.42)	0.04	0.04

점, '감정통제' 3.08(SD=0.47)점, '호기심' 3.36(SD=0.62)점, '낙관성' 3.52(SD=0.61)점으로 나타났다(표 4).

각 하위 요인별 점수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감정통제' 요인 점수가 비교적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하는 기술 습득을 아직은 획득하는 과정이면서, '감정통제'의 기술이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자아통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였다. 여아의 자아탄력성 점수(Mean=138.97, SD=16.70)가 남아(Mean=135.75, SD=16.7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2$, $p<.05$).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들(강희경, 2005; 권지은, 2003; 이은미, 박인전, 2002)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강희경(2005)과 권지은(2003), 그리고 이은미와 박인전(2002)의 연구 모두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던 점을 생각할 때, 아동의 성별과 자아탄력성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아탄력성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아동의 발달적 제반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Kirby & Fraser, 1997:24).

한편,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집단의 자아탄력성 점수(Mean=138.98, SD=17.51)가 그 순위가 셋째이하인 집단(Mean=131.66, SD=12.9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2.94$, $p<.05$). 본 연구의 대상 아동 대부분이 첫째이거나 둘째 사례인 경우가 90% 이상을 넘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셋째 이하인 사례가 비교적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출생 순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원수,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버지의 직업 유형, 가족형태, 자녀수, 아동이 지각한 가족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

(N=438[4])

변인	내용	n	Mean(SD)	F(t)값
아동의 성별	남	221	135.75(16.75)	-2.02*
	녀	217	138.97(16.70)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206	136.67(16.43)AB[5]	2.94*
	둘째	200	138.98(17.51)A	
	셋째이하	32	131.66(12.90)B	
가족원수	3인	29	136.86(17.07)	0.21
	4인	278	137.75(17.78)	(n.s)
	5인	102	136.26(14.88)	
	6인이상	29	137.69(13.11)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74	135.81(16.68)	-1.45
	대졸이상	257	138.18(16.65)	(n.s)
母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212	136.44(15.88)	-1.03
	대졸이상	219	138.11(17.55)	(n.s)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76	139.95(18.35)	0.67
	사무직	180	137.46(15.47)	(n.s)
	서비스근로직	82	135.83(19.34)	
	자영업	82	136.62(15.48)	
	기 타	6	138.83(12.02)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230	138.59(17.43)	1.35
	취업모	203	136.45(15.49)	(n.s)
가족의 경제수준	여유있는 편	89	139.72(16.56)	2.69
	중간 정도	316	136.22(16.88)	(n.s)
	어려운 편	33	141.64(15.47)	
가족 유형	핵가족	380	137.53(17.04)	0.61
	확대가족	55	136.09(15.07)	(n.s)

*$p<.05$ n.s=not significant

주4)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에는 차이가 있음

주5) Duncan의 사후 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6〉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계수표

(N=438)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자아탄력성
가족의 지지	1.00			
친구의 지지	0.26***	1.00		
교사의 지지	0.30***	0.25***	1.00	
자아탄력성	0.31***	0.54***	0.30***	1.00

***p<.001

3.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독립변인, 즉,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인인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 가족과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에서 다공선성의 기준인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공선성이 없는 것(김석우, 김정섭, 김명선, 정혜영, 조영기, 박경미, 정성아, 박동성, 백영옥, 2003:109)으로 분석되었다.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그 계수가 모두 4 이하로 분석되어 독립변인 간의 다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193)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2〉에서 '가족의 지지' 점수 분포의 정상성을 검증해 주는 왜도와 첨도 지수가 각각 -1.61과 3.00으로 분석되어, 자료가 어느 정도 편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의 지지 원표준편차인 4.33을 원평균 점수인 34.61점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1/4보다 작게 산출되어 회귀분석에서 변환이 필요치 않은 것(한국가족학연구회, 1994 : 66)으로 나타나서 원점수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7〉은 가족 · 친구 ·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투입방식(enter)에 의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요인 영역 점수가 자아탄력성 전체 변량의 34%(p<.001)를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 모두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친구의 지지(β=.46)' 이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β=.15)' 와 '교사의 지지(β=.14)' 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7〉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N=438)

독립변인	b	β
'가족의 지지'	0.43	.15***
'친구의 지지'	1.43	.46***
'교사의 지지'	0.35	.14***
intercept	73.15	
R^2	.34***	

***p<.001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연구자의 초기 가정과 선행 연구들(김승경, 강문희, 2005; 이은미, 박인전, 2002; 정미현, 2003)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동조성이 점차로 증대되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친구의 지지 역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연구자의 초기 가정과도 일치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Mean=34.61, SD=5.85)가 친구의 지지 점수(Mean=30.23, SD=5.44)보다 유의하게 더 높음(t=-13.38, p<.001)에도 불구하고,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친구의 지지 요인이 가족의 지지 요인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아동의 삶에 있어 가족이 아동 자신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체계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족 외부 환경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가족 이외의 친구라는 중요한 타인이 아동의 삶에 큰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교사의 지지 역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본 결과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지원체계로서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반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고, 가족 및 친구, 그리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38명이었으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 및 친구 그리고 교사의 지지 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수 분포

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평균 4.33(SD=0.73, 1-5점 Likert 기준)점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지지 3.78(SD=0.68)점 이었고, 교사의 지지 점수는 3.35(SD=0.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학령기로의 진입으로 인해 아동의 삶에 있어 가족 이외에 또래, 교사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함에 따라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삶에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가족의 지지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둘째,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분석에서는 아동이 평가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남아보다 높았으며, 가족원수가 4인 가족이거나 6인 이상일 때가 3인 가족이거나 5인 가족일 때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분석에서는, 가족의 지지에 있어4인 가족 또는 6인 이상 가족의 아동이 지각하는 지지 수준이 5인 가족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고졸이하인 아동 집단보다 가족의 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 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 점수도 취업모 가족 아동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친구의 지지 영역에서는 여아가 지각한 친구의 지지 점수가 남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가 지각한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령기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라는 존재를 보다 친밀하고 상호적인 보살핌과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발달적 특성(Newman & Newman, 1995:360)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의 지지 영역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나서, 아동이 평가한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유 있을 때, 어렵다고 지각한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아동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는 3.43(SD=0.42, 1-5 Likert 기준)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인 학령기 아동들은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자아탄력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남아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인 경우 셋째이하일 때 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원수,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가족의 경제 수준, 가족 유형과 자녀수 등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연구결과들(강희경, 2005; 권지은, 2003; 이은미, 박인전, 2002)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 친구,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세 변인 모두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 친구의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 그리고 교사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생활 영역이 가족 외부의 사회적 환경으로 확대되는 학령기 발달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의미 있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의 제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도 친구의 높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지지 역시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교사의 따뜻하고 지원적인 아동 개개인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이상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이 이혼가족, 장애아동 가족, 알콜중독 등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관련을 맺는 보호 요인으로 주로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 환경에만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뿐 아니라 가족 외부 환경의 영향력도 함께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학령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의 이해를 돕는 탐색적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삶의 영역이 가족 외부의 사회적 환경

으로 확대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가족의 지지 외에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자리 잡은 친구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여 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이해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앞서 정의하였듯이, 개인이 성장·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효과만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아동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해수(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족탄력 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석우, 김정섭, 김명선, 정혜영, 조영기, 박경미, 정성아, 박동성, 백영옥 (2003).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SPSS WIN 10.0. 활용의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김승경, 강문희(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남영옥, 김재한(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국선, 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양옥경, 최명민(2001). 한국인의 한과 탄력성 :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29.

이은미, 박인전(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한국가족학연구회(1994).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서울 : 하우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Hair, J. T.,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Jacobson, D, E.(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Kirby, L., & Fraser, M.(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pp.10-33)*. Washington, DC : NASW Press.

Newman, B, M., & Newman, P, 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 : A Psychological Approach(6th e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Turner, R. J., & Avison, W. R.(1985). Assessing Risk Factors for Problem Parenting :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81-892.

Walsh, F.(1998). 양옥경 · 김미옥 · 최명민 역(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나남출판

(2006년 7월 26일 접수, 2006년 10월 26일 채택)